

우수 봉사자 수상자  
- 의료인 부문

#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생활화

재미있고 쉬운 강좌를 자주 개최하여 장애우를 보는 편견을 고쳐주고 싶다는 양태원 팀장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소외감은 느끼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얘기한다.

**대전** 성모병원 아동치료사인 양태원씨는 뇌성마비 아동치료,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에는 일본 보바스 병원에서 성인과 아동에 대한 치료부문의 연수를 계기로 아시아 지역 봉사와 일본지역의 강사자격 소지자이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대전지역 아동치료를 위한 강좌를 매월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의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관을 선정하여 장애아동의 부모를 치료사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실무를 직접 교육하고 있다.

양태원씨가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은 유봉운 신부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연산에 위치한 성모의 마을이라는 중증장애우 수용시설을 방문 그곳의 아이들과 장애우를 치료하고 치료사를 교육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 87년도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치료기법을 배우면서 지역적으로 낙후된 장애우 치료를 보급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활동이 일본 보바스 기념병원을 다녀온 이후인 92년이라고 할 수



양 태 원(마르티노)

대전성모병원 아동발달센터팀장

있다. 성모의 마을을 직접 방문하거나 치료사를 초빙하여 교육 및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전지역의 치료사교육을 통해 이들과 함께 낙후된 지역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꽃동네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우에 대한 문제점과 평가방법,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도 지역 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우 부모를 치료사로 만들기 교육을 할 예정이다.

또한 2006년 계획으로 장애발달센터와 초, 중, 고등학교의 운동부와 연계하여 학생선수를 위한 스포츠센터를 개설하여 전문검진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재미있고 쉬운 강좌를 자주 개최하여 장애우를 보는 편견을 고쳐주고 싶다는 양태원 팀장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소외감은 느끼지 않는 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얘기한다. 🐦